

회의명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기간

2022. 6. 22.(수) 15:00~16:30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실

참석자

|                             |
|-----------------------------|
| - 연수구가족센터 센터장 주영신           |
| - 연수구가족센터 총괄팀장 김솔           |
|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팀장 정운종         |
|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실무관 박소연        |
| - 미추홀법률사무소 부소장 이도희          |
|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이미정        |
| - 하나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순          |
| - 센터 이용자 대표(비다문화) 정세연       |
| - 센터 이용자 대표(다문화) 도수지 (이상9명) |

작성자

김솔 총괄팀장

회의내용

1. 성원 보고 및 개회선언

연수구가족센터 운영위원 11명 중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정운종 팀장이 배석하여 총 9명의 인원으로 성원이 되어 이도희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였다.

2. 운영위원 소개 및 위촉장 수여

- 김솔 총괄팀장이 참석한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주영신 센터장이 위촉장을 전달하다.

- 주영신 센터장은 1분기 운영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2분기에 위촉장을 전달한다고 부연설명하다.

3. 2분기 주요 운영 현황 보고

-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2분기 센터 주요 운영 현황 및 조직현황을 보고하다.

4. 1호 의안 2022년 상반기 정산 및 사업실적을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이혜순 위원의 동의와 도수지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위원 의견

- 주영신 센터장은 이월금에 대해 아이돌보미 2021년 12월급여가 2022년 1월에 지급되어 돌보미 급여가 포함됨을 부연설명하다.

- 이미정 위원은 찾아가는 사회통합교육 인권 강사에 대해 법무부 인권강사 인력풀을 활용해 보는 방안을 제안하다.

▷이에 이도희 위원장이 인천지방청 인권이해 전문가도 있다고 추가 인력풀 방안을 제안하다.

▷주영신 센터장은 성인대상의 프로그램이 아닌 자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

## 회의 내용

으로 그에 맞는 강사를 섭외했다고 설명하며, 추후 성인대상 교육 진행 시 강사 추천을 요청하다.

- 이도희 위원장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대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잘 정착하고 현실적인 불이익을 보지 않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제안하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이 보이스피싱에 대해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예방교육은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2021년 인천소비자교육중앙회와 연계하여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부연설명하다.

5. 2호 의안 2022년 3분기 주요사업을 김솔 총괄팀장이 서면자료 및 PPT자료를 통해 보고하다. 이에 이미정 위원의 동의와 이혜순 위원의 재청으로 원안대로 가결되다.

- 이혜순 위원은 다문화자녀 한국어교실 지원사업에 대해 현재 어린이집에서도 점차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로 언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고려인도 보육료가 지원되어 한 원에 20-30명의 외국인이 재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문남초등학교와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는데 1반에 20명 중에 10명이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고려인이 재학 중이며, 함박마을이 원주민들은 떠나고 고려인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으로 원주민과의 갈등이 매우 심각함을 설명하다. 초등학교에서 해결되지 못한 언어문제가 그대로 중학교로 연계되어 현재 센터도 연수중학교와 방과 후 한국어교실을 운영 중에 있다고 보고하다. 또한 센터에 오는 언어발달 대상자들도 5-6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단어의 어휘량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으며 발음이 명확하지 않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고하다. 2023년 사업의 포커스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 보다는 다문화자녀에 중점을 맞춰 정서심리지원, 학습지원 등의 학령기 자녀를 위한 사업방향성을 설명하다.

6. 3호 의안 2022년 2차 추경예산(안)을 김솔 총괄팀장이 보고하니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다.

1) 1차 추경예산: 4,021,951,000원

2) 2차 추경예산: 4,050,779,000원

3) 추경사유: 공모사업 선정 및 직원 입.퇴사로 인한 인건비 조정으로 인한 예산 추경

7. 기타 안건 논의

- 이미정 위원이 약 2년간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진행이 어려웠는데 단계 완화로 대면으로 진행되어 만족감을 표하였으며 새로 오신 위원장님께 감사인사말씀을 전하다.

- 정운종 위원이 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해보니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자세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다.

- 박소연 위원이 운영위원회를 통해 센터를 알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다.

- 도수지 위원이 가족센터에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으며 베트남 결혼이민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인사를 전하다.

- 정세연 위원이 대면으로 진행함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으며 본인 자녀들이 성장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한다. 또한 센터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족센터를 알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 이혜순 위원이 직원들의 워크샵 사진을 보며 행복함이 느껴지며 소중했던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한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직원들은 키트 포장과 배부 및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프로그램 아이디어 구상 등으로 더 바빠졌으며 일에 많이 지쳐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들을 보으며 힐링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부연 설명 하다.

▷이혜순 위원은 애로가 많이 느껴지며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 있는 워크샵 진행으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다보니 이중으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공유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공감을 표하다.

▷이도희 위원은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있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기별 직원들을 위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다.

▷이에 주영신 센터장은 직원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월1회 계획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같이 협의하며 일하기 즐거운 직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고 답하다.

## 9. 폐회

이도희 위원장이 마무리 인사를 하고 연수구가족센터 2차 운영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